

장님을 이끄는 장님



홍경안 역
시시일각

‘장님을 이끄는 장님’(1568)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배경 아래 여섯 명의 장님이 줄지어 걷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런데 주인공들의 미래는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앞에 있던 장님은 이미 구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두 번째 장님은 막 넘어지려는 순간이다. 균형을 잃은 채 비틀거리고 있는 그의 표정에는 공포와 당혹스러움이 역력하다. 나머지 사람들 역시 곧 첫 번째 장님과 같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16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르 브뢰헬이 그린 이 풍자화는 성경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나오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다.”라는 구절에 근거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지도자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통찰 없이 다른 사람을 이끌 경우, 자신과 타인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난 3일 ‘장님을 이끄는 장님’의 경고가 현실화됐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즉 비상계엄이다. 야당에 대한 감정적 반발로 인한 그의 돌발 행동에 나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으며 경제는 올 스톱됐다. 장갑차와 헬기가 등장하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점령하려 하자 의신들은 일제히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했다. 이어 7일, 헌정 중단을 시도한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손바닥에 왕(王)자를 그리는 등 범상치 않은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 그가 국정에서 손을 뗀다. 왕정 국가도 아닌건만 국정 운영을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다.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는 순수히 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사람 아니다. ‘일임’은 언제든 철회한다고 하면 그만이고, 국정 관여도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8일에도 이 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내란죄 수사대상인 한덕수 총리와 행정부의 일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 지위와 권한이 없는 한동훈은 정부와 당이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당에 위임 또는 승계하거나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특히 국민 누구도 그들에게 국정 운영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탄핵만이 답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연명은 더 큰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장님을 이끄는 장님’에서처럼 우매한 지도자가 인도하는 길엔 불행한 말로만 있다. 그러나 현실은 민주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대통령직에 그대로 뒀야 하는 상황이다. 쿠데타도 하나의 정치 행위로 간주하는 정신 나간 지도자와 내란조차 용인한 정당이 합잡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판이다.

국민은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론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윤석열 내란 공범의 길을 선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믿지 않는다. 모두 축출해야 한다. 술한 피를 흘리며 지켜온 자유와 권리, 헌정을 위해 국민이 나설 때이다. /미술평론가

이복현의 임기 그리고 인사



기지수첩
허정운 (자본시장부)

“계엄이래! 너 괜찮냐? 그런데 내일 국장은 한대?” 지난 3일, 늦은 밤 10시. 기자가 아닌 지인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누군가는 거하게 취했을 시간이기도 ‘한 잔 했나?’, ‘가짜뉴스 봤나?’ 하는 생각으로 뉴스 페이지를 훑었다. 정말 ‘비상계엄’이었다. 북(北)의 도발도, 침공도 없는 21세기형 계엄. 기괴한 경험이었다.

4일 아침,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됐기 때문일까? 주가는 생각만큼 하락하지 않았다. 장은 평소처럼 열렸다. 다수의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양대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수 있다는 공포까지 엄습했기에, 마치 ‘선방’한 기분마저 들었다.

‘국가원수’가 만든 증시 변동성에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사단의 ‘막내 검사’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다니던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도 빨라졌다.

4분기 들어 금감원장 임기 ‘연임설’까지 술술 나오긴 했지만, 이번 탄핵 정국으로 연임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탄핵 정국을 돌이켜보면 이 원장이 남은 임기(내년 6월 종료)를 채울 확률이 크다.

금감원장은 통상 차관급으로 분류되며, 금융위원회의 의결과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직무정지까지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금감원장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탄핵 절차에만 5~6개월이 소요되며,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더라도 금감원장 교체는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

성이 높아 보인다. 계엄 사태로 대통령실의 업무 시계는 멈췄지만, 금감원의 시계가 멈추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부원장보와 국장 인사가 계엄 사태로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오히려 더 빨리 결정됐다.

13일 발표, 17일 시행 예정이던 국장 인사는 10일 발표, 13일 시행으로 앞당겨졌다. 금융 혼란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지 않았을까.

이번 인사는 이 원장의 마지막 정기 인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제까지 그의 인사는 ‘파격적’, ‘연공서열 파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늘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마지막 정기 인사가 앞으로 금감원이 맞닥뜨릴 과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길 바란다.

/zelkov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11일 (음 11월 1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재물 운세가 상승이니 좋은 소식이 올 것. 48년생 오늘 일은 어제 의고난에서 오는 보답. 60년생 오래전 친구가 소식을 전해온다. 72년생 돈만 써대는 형제일 처리하다 발전이 저만치 멀어진다. 84년생 마시는 물도 조심해서.



37년생 기다림에 지쳐 목이 아프다. 49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61년생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73년생 남풍한 일이 미뤄져도 기다리면 소식이 온다. 85년생 행운이 손짓하는 날이니 과감한 선택도 무방.



38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들어오는 날. 50년생 뛰다 보면 가슴 벅찬 행복이 온다. 62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74년생 이성 간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86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가족.



39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으나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51년생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63년생 우물에서 승부 찾지 말고 매사 순서대로. 75년생 손톱 밑에 가시처럼 구슬이 제거되니 후련하다. 87년생 이성 운이 좋은 시기이니.



40년생 삶의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을 두라. 52년생 주책을 즐겨받을 일이 생긴다. 64년생 젊어서 모아야만 새삼 아프지 않다. 76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평온한 하루. 88년생 진취적 행동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것은 실력이 우선이기에.



41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남들의 질시를 받는다. 53년생 가까운 친구의 모함을 받게 되니 주의하자. 65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자중. 77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오니 자중해야. 89년생 머리가 맑고 상쾌한 하루.



42년생 어제의 바람이 태풍으로 온다. 54년생 계획한 일이 무리일지라도 응원하며 나아가라. 66년생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았다. 78년생 세상만사 새옹지마이니 일희일비는 금물. 90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



43년생 야근으로 피곤한 날이니 외출을 자제. 55년생 고지가 눈앞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동. 67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기본 좋은 날. 79년생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91년생 언제나 구르는 돌에는 아끼가까지 없으니 부단히 노력.



44년생 주책씩 웃이 행운을 가져온다. 56년생 성실해야 미래가 편하다. 68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80년생 삼각관계의 부적절한 관계는 반드시 망신을 당한다. 92년생 산 좋고 물도 좋는데 내가 머물 곳은 아니다.



45년생 뒤편 열심히 하면 운도 따른다. 57년생 지는 태양을 막을 도리는 없으나 내일 또 태양은 뜬다. 69년생 원하는 바가 없으면 겁낼 게 없다. 81년생 떠들썩한 칭찬이 없어도 묵묵히 일을 해내야. 93년생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을 해야.



46년생 나의 기술을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니 즐겁다. 58년생 뒷사람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70년생 꽃이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82년생 사업을 하고 싶어도 조직 생활을 해보고 나서가 순서. 94년생 한번을 참으면 만사가 편안하다.



47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감수. 59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좋은 곳에 기부하는 것이 좋겠다. 71년생 작은 먼지로 눈이 매우 아프다. 83년생 동료의 협조를 예너지가 두 배. 95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될 것이라고 외쳐보는 것도.



김상회의四季 철성기도 정성

서양의 종교는 유일신 개념이라 오로지 그 한 분에 대해 기도만 하여도 되는 것이지만 동양은 기본적으로 범신론 개념인지라 두두물물(頭頭物物)에 신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불교에서는 보살 도를 성취하여 보살의 지위를 얻게 된 수많은 불보살이 중생들의 어려움을 두루두루 살피고 피한다고 하는 믿음이 굳건하다. 사람마다 발원의 내용이 다르고 근기가 다르듯이 불가의 불보살님들도 각기 전공(?)이 있다. 즉, 의 사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와 병의 원인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은 어느 수준 이상이지만 각기 심장 전문의, 폐 전문의처럼 나름의 특장 전문이 있듯이 우리 중생들의 고통의 원인에 따라 자비하신 불보살들에게도 각별히 칭호만 들어도 알만큼 우선적인 효험을 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월광사 신도분들이나 주변의 독실한 불자들을 뵈자면 신심도 훌륭하고 겸손하다. 나름대로는 주변의 인연들에 알게 모르게 형편껏 덕을 베푸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니 복덕이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이분들의 기도를 보자면 무조건 “나, 이거저저 되게 해 주세요.”가 아닌, 스스로 성의를 다하면서 가피를 구하는 모습이다. 역시 필자와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신도 한 분은 매월 음력 칠일마다 철성 기도를 올린다. 가족들이 직장 공부로 인해 떨어져 살고 있기에 먼 길 떠난 식솔들의 안녕과 무탈함에 감응을 해 주시는 기도가 철성 기도이다. 민간적으로는 철성 기도와 같이 장독대에 정갈히 물 한 그릇 담아 올리며 하던 기도는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행해지던 정성이다. 철성 기도는 수명의 장원 자손의 점지 건강은 물론 타지에 나간 식솔들의 안녕에도 감응이 탁월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트의 열과파를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8	5		4	2		7	
				9	6			
		3		2	4			
		6		5			8	
4			9	1				2
7			5		6			
		7	4			9		
			6	2				
2	4	1			5	3	6	

8				7				
3				2	1	5	9	
5	2	4			7			
1	6			2	3			
			8	5				
		7	6				2	5
		6		9	5	4		
4	9	5	1				7	
			2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트의 열과파를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9	8	5		4	2		7	
				9	6			
		3		2	4			
		6		5			8	
4			9	1				2
7			5		6			
		7	4			9		
			6	2				
2	4	1			5	3	6	

8				7				
3				2	1	5	9	
5	2	4			7			
1	6			2	3			
			8	5				
		7	6				2	5
		6		9	5	4		
4	9	5	1				7	
			2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7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